

# 잡아함 106. 아누라도경

날짜: 7월 16th, 2024

출처: <http://www.dhamma.kr/wp/?p=17735>

이와 같이 내가 들었다.

어느 때 부처님께서 왕사성의 칼란다 대나무 동산에 계시었다. 그 때에 아누라다라는 비구는 기사굴산에 있었다. 때에 집을 나온 외도들은 아누라다가 있는 곳으로 가서 서로 인사한 뒤에 한 쪽에 서서 아누라다에게 사뢰었다.

“물어 보고 싶은 일이 있사온데 혹 한가하시면 해석해 주시겠습니까.”

아누라다는 여러 외도들에게 말하였다.

“마음대로 물으라. 아는 것은 대답하리라.”

“어떻습니까. 존자여, 여래는 죽은 뒤에도 있습니까.”

“세존께서 말씀하신대로 하면 그것은 무기(無記)니라.”

“여래는 죽은 뒤에는 없습니까.”

“세존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면 그것도 또한 무기니라.”

“여래는 죽은 뒤에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합니까. 있지도 않고 없지도 않습니다.”

“세존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면 그것도 또한 무기니라.”

외도들은 다시 물었다.

“무슨 일입니까. 존자여, ‘여래는 죽은 뒤에도 있습니까’고 물으면 무기라 말하고, ‘죽은 뒤에는 없습니까’고 물어도 무기라고 말하며, ‘죽은 뒤에는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합니까. 있지도 않고 없지도 않습니다.’고 물어도 무기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떻습니까. 그러면 사문 고오타마는 알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합니까.”

아누라다는 대답하였다.

“사문 고오타마께서는 알지 못하는 것도 아니요 보지 못하는 것도 아니니라.”

때에 모든 외도들은 아누라다의 말을 불쾌히 생각하고 그를 꾸짖고는 자리에서 일어나 떠나갔다.

때에 아누라다는 모든 외도들이 떠난 줄을 알고 곧 부처님이 계신 곳에 나아가 부처님 발에 머리를 조아리고 한쪽에 서서 모든 외도들이 물은 일을 부처님께 자세히 말하고 다시 부처님께 여쭙었다.

“세존이시여, 저들은 그렇게 묻고 저는 그렇게 대답하였나이다. 그것은 모든 법의 말씀과 맞는 것입니까. 세존을 비방한 것이 되지나 않나이까. 법을 따른 것입니까. 법을 어긴 것입니까. 누가 와서 힐난함으로써 그의 꾸짖음을 받지나 않겠나이까.”

부처님께서는 아누라다에게 말씀하시었다.

“나는 이제 너에게 물으리니 묻는 대로 대답하라. 아누라다여, 물질은 항상된 것인가. 항상되지 않은 것인가.”

“항상되지 않나이다.”

“느낌·생각·지어감·의식은 항상된 것인가. 항상되지 않은 것인가.”

“항상되지 않나이다. 세존이시여.”

(염마경 104경에서 널리 말한 것과 같다.)

“...내지 의식이 여래인가.”

“아닙니다.”

부처님께서는 아누라다에게 말씀하시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모든 법의 말을 따랐고 여래를 비방하지 않았으며, 차례를 뛰어넘은 것이 아니다. 여래가 말한 것처럼 법을 따라서 말한 것이다. 그래서 아무도 와서 힐난하거나 꾸짖지 못할 것이다. 왜 그러냐 하면 나는 물질을 참다야 알고 물질의 모임과 물질의 멸함과 물질을 멸하는 길을 참다야 알기 때문이다. 아누라다여, 만일 여래의 한 일을 버리고 아는 것도 없고 본 것도 없다고 말한다면 그것은 당치도 않은 말이니라.”

부처님께서 이 경을 말씀하시자 아누라다는 부처님 말씀을 듣고 기뻐하여 받들어 행하였다.